

유연한 화승의 가장 고무적인 일은
바로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



Do Better Tomorrow

화승그룹



신비한 신비

꿈틀 프로젝트의 꿈틀이 신비, 주말 나눔농장 화승이랑의 체녀농부 신비. 화승이 한다면 무조건 달려오는 이 여자, 신비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모두 내 것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그 많은 경험들을 맛있게 버무려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만의 유연한 삶의 전략이다. 또한 1년이 넘게 댄스학원을 다니며 걸그룹 포스까지 겸비한 신비의 도전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한·중·일식, 제과제빵 자격증 따기 등 버킷리스트가 수두룩하다. 불었다, 터지면, 다시 불면 되는 풍선껌처럼 늘 유연한 삶을 탐색하며 실천하는 그녀의 Yes가 더 아름다운 나날이다.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현승훈의 화담(和談)

화담(和談): [명사]

- ① 정답게 주고받는 말
- ② 화승을 담는 말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현승훈 회장의 스킨십
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며, 평소 회장이 생각해온 그룹과 조직문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훈입니다.
따스한 기운과 함께 남실바람 불어오는 계절에 여러분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손 편지로 지인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었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여러분과의 이런 소통과 교감은 저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화승가족들께 드리는 이 편지로
평소 지녀왔던 저의 생각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공관신민혜(恭寬信敏惠)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공즉불모(恭則不侮) 공손해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관즉득중(寬則得衆) 관대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며,
신즉인임언(信則人任焉) 신뢰와 의리가 있어야 남이 일을 맡긴다.
민즉유공(敏則有功) 맡은 일은 민첩하게 처리해야 공적을 세울 수 있고,
혜즉족이사인(惠則足以使人) 은혜를 베풀어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른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일컫는 말이지요.

저는 항상 이 말을 되뇌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인생의 정도(正道)를 제시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가로수 잎 사이의 푸른빛을 보았습니다.
흔하디흔한 가로수일진대 오늘따라 유난히 더 푸른빛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타인에게는 어떤 사람일지
내 주변은 나로 인해 어떤 색으로 물들고 있는지.

여러분은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또 주위는 어떤 색으로 물들고 있는지요?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건강한 생각과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거짓되지 않은 깨끗한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밝아지길 희망합니다.

마음을 바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2014년 6월 2일

현승훈



CONTENTS

2014 Summer Vol.35

Open day

04 현승훈의 화담(和談)

08 Open Your Life // 참 고무적인 화승

Flex + Able 유연한 삶을 위하여

12 Interview 1 // 다재다능 방송인 최정문

16 Interview 2 // 화승R&A 설계파트 김윤규 대리

20 화승의 속살 1 // 고무적인 신발 공장,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24 Real Talk // 직장생활 갈등 해소 비법

28 Photo Space // 세월의 흐름 속, 유연하게 살아남은 공간들

Bounce Bounce 예측 불허한 즐거운 상상

34 Column // 너와 나 사이 닫힌 문을 여는 유연함

36 Interview 3 // 아티스트 그룹 길종상가

40 Interview 4 // 화승엑스월 통합구매팀 안현경 사원

44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 으리으리한 안성 데이트 코스

48 Photo Essay // 나를 쫓기하게 만드는 것들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Tie Up 너와 나를 잇는 사이의 과학

54 CEO Memories // 직원을 하나로 묶는 CEO 이야기

56 화승의 속살 2 // 화승사람들도 모르는 화승인더스트리 제품 이야기

60 글로벌 화승 // 화승비나 창립 12주년 기념 행사

64 화승이랑 놀자 // 농사로 꼭 묶은 화승이랑

68 위드 프로젝트 // ❶ 화승 꿈틀 프로젝트 ❷ 향기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 인터뷰

Hawseung Reports

76 화승에 이런 일이 1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회장 위촉식

77 화승에 이런 일이 2 // 2014년 신입임원 역량 강화 과정

78 화승에 이런 일이 3 // SHE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9 화승에 이런 일이 4 // 화승R&A·화승소재 모범사원 해외여행

80 그룹 뉴스

82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참 고무적인 화승입니다 더 유연해질 내일입니다

세상,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너와 나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완충해주며
부드럽게, 유연하게 소리 없이 지켜주는 고무처럼
참 고무적인 시간을 이어온 화승.

기차표 고무신으로 전 국민의 발이 되었던
1953년부터 오늘까지
저 머나먼 베트남, 중국에서 그 신발의 혼을 이어오며
세계 곳곳에서 고무를 기반으로 한 첨단 소재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산업용 고무제품,
제품과 제품 사이를 보호하는 포장용 필름,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용 EVA 시트,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대한민국과 세계로
유연하게 이어주는 무역까지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씬 없이 진화시켜온 61년 –
화승의 참 고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고무만으로 이 고무적인 시간을 이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꾹꾹 묶고
통통 튀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쭉쭉 늘렸다, 줄이기도 하는
인화(人和)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1953년 시작된 화승의 태동이
1983년 화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2014년 글로벌 화승그룹이라는 더 큰 오늘을 만나기까지
화승에 다닌다는, 화승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화승'이라는 글자만 봐도 벅찬 시간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심이 화동하여 합함은 인간 삶의 근본이다.
이의 꾸준한 연속이 가정과
회사와 국가발전의 첩경이기에
우리는 회장님을 구심점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그룹의 명칭을 “화승”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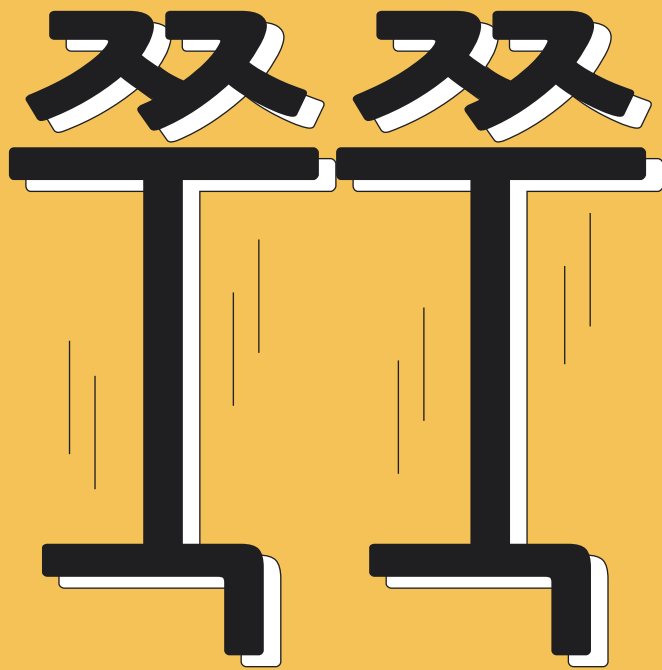
1983년 제정된 화승인의 행동강령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화는 인간다운 공동사회를 만드는
근본 바탕이다.
기업의 융성은 곧 소속된 사원과
가족들의 발전이 된다.
우리는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민족, 한가족이다.

인화로 융성한 화승이 직원과 가족과 더불어 더욱
융성하고,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 더 큰 화승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이토록 유연하고도 고무적인 행동다짐.
2014년 이 여름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뜨겁게 이어질
화승 사람들의 액션플랜입니다.

당신의 삶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의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부드럽게, 유연하게 생각의 한계를 없애면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화승이 고무로 고무적인 오늘을 만들었듯
당신만의 무기로 더 유연해질 내일을 꿈꿉니다. 🇰🇷

Flex+Able



쭈:쭈 늘었다 줄었다 자유자재로 변화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된다는 고무적인 생각으로
유연한 긍정의 사이즈를 키워갑니다.

유연한 지니어스 그녀, 최정문



방송인 최정문

이리 구부러졌다 저리 펴지고, 또 부드럽다가도 때론 단단해지는 사람을 '유연하다'라 부른다면 최정문은 그에 딱 맞는 존재다. '엄친딸'이라고 불리지만 파고 들어갈수록 허술한 면이 나오는 것도 그녀만의 매력이다.

다양한 패가 섞여 유연함을 만들다

최정문은 소위 말해 '탤런트가 넘치는' 소녀다. 150을 훌쩍 넘는 IQ, 서울대학교라는 최고의 명함, 거기에 '명품 골반'으로 대변되는 몸매에 천사 같은 마스크까지. 좋은 원석을 골라 다듬고 또 다듬은 듯 빛이 나는 존재지만 그런 훌륭한 재료들은 그녀에게 고민 거리와 함께 많은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그런 재능이 걱정 되는 이유는 갈 수 있는 길이 무척 많아서다. 일단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박사를 바라볼 수도 있다. 넘치는 끼를 이용해 방송 분야를 파고 들어가도 된다. 또 훌륭한 미모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불변의 요소다. 그러나 사실 그런 갈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엔 무척 배부른 고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분야건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기 위해선 재능이 필요한데, 최정문에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기 때문. 포커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패를 가진 사람이 가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스스로도 학업과 거리가 있는 방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그래도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네'하고 여긴다. 대학교 4학년인 그녀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조금할 생각은 없다. "방송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우연찮게 좋은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전공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한다 해도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해보려고요."

방송인으로서의 첫걸음 <더 지니어스>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했지만 주목을 받게 된 건 작년 방영된 tvN의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때문이다. '천재 소녀'라는 캐릭터로 등장한 그녀는 경매사 김민서를 가위바위보로 탈락시키고 탤런트 최창엽과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승전에도 깜짝 출연해 홍진호의 우승을 도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란 꿈을 정하진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건 사람들이 저를 떠올릴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면 좋겠어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최정문은 사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게임을 벌여 한 회에 한 명씩 탈락하기에 힘을 합쳤다가도 배반하고, 조연을 하다가도 속임수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멘사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해서 어려웠어요. 또 저를 중심으로 팀을 꾸릴 능력도 없었고 나이가 어려 팀에서 선봉이 될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방송인 최정문의 출발점과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느리고도 신중하게 짹짹 채워지고 있다. <더 지니어스>로 유명세를 탄 최정문은 이후 <SNL 코리아>에 홍진호와 출연하며 스트리트파이터의 ‘춘리’ 연기를 선보였다. 또 지난 2월 남성 잡지 <맥심 코리아>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8등신 몸매를 뽐내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섹션TV 연예통신>의 리포터로도 데뷔했다.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 이미 햇수로 10년 넘게 전파를 탄 그녀다. 그녀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내는 가장 큰 재산은 역시 ‘두뇌’다. 천재들의 집단 ‘멘사코리아’의 인증을 받은 최정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리며 여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특별히 학원에 가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표로 한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글짓기면 글짓기,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등 나가는 대화마다 상을 휩쓸었다.

알고 보면 엉뚱한 23살 소녀

사전 지식을 모두 털어내고 보면 최정문은 영락없는 천진무구 여대생이다. 난해한 질문에 입술을 비죽이며 골몰하는 모습도, 어떤 음료수를 고를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도 딱 그맘때의 소녀 같았다. 방송국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런 철부지 같은 부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관계자들과 미팅을 많이 해요. 스스로 말도 잘하고 활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긴장하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활발한 성격이지만 낮을 조금 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뚝 부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친해지게 되면 허술하고 엉뚱한 진짜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인다. 제대로 된 사진 촬영을 위해 장소를 카페에서 스튜디오로 옮기자 방금 전까지의 천진한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표정을 바꿔 보라는 요구에 순식간에 표정과 포즈를

변화무쌍하게 바꾸며 보는 사람을 감탄케 했다. 강심장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방송을 하며 크게 떨리거나 긴장된 적도 없다. 방송 시작 전 준비할 것도 많고 대본 외우랴 의상 정리하랴 하다 보면 이미 무대에 서 있다고.

학업도 방송도 포기할 수 없다

최정문은 요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게 힘들단 걸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도전이 즐겁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포기하기 싫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란 꿈을 정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건 사람들이 저를 떠올릴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년 이맘때에는 지금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싶어요.” 🇰🇷

암전한 고양이, 고양이를 키우다



지난 3년간 화성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화승인 바이러스를 찾고 찾았건만 숨은 고양이처럼 좀체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유연한 반전 매력을 가진 직원을 찾던 중 화승R&A FL선행설계팀 김윤규 대리를 만나고서야 '아, 이 사람이 딱이네!'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회사에선 CAE 해석이라는 유니크한 업무에 매진하고, 집에선 두 고양이의 형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암전한 고양이, 김윤규 대리의 유연함을 훑쳐보자.

유니크한 CAE 해석이라는 업무

CAD는 들어봤어도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는 몰랐다. 공학의 역학적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영역으로서 컴퓨터상에서 구조물 등을 만들어 구조 및 유동 해석을 하는 게 화승R&A FL선행설계팀 김윤규 대리의 업무. 뭐가 이렇게 어렵나 싶지만 이 업무, 무척이나 유니크하다.

화승인 바이러스의 자격 있다, 김 대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석 기술을 고객사에 알리는 동시에 제품의 성능 검증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김 대리는 전공을 그대로 살렸다.

“전공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라고 말할 정도로 일에 푹 빠져 산다. 평소 업무에 매진할 때는 과하다 싶을 만큼 과묵하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를 불사하며 불꽃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암전한 고양이, 김 대리.

문득 겸허해지는, 키움에서 삶으로

2010년 느즈막에 고모님께서 한 통의 전화를 주셨다.

고양이 한번 키워볼래? 그때 처음 만난 고양이가 루나라는 노르웨이숲 암컷이었다. 6개월을 함께 살다가 시집을 보내기 위해 고모님께 보내드렸고, 안쓰러워하던 그에게 고모님이 다시 물어왔다. 고양이 계속 키우고 싶니? 그때부터 함께한 고양이가 바로 민수, 敏獸다. 민첩한 짐승, 민수. 노르웨이숲이라는 종인데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가끔 레버식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집을 비운 사이 김 대리의 베개를 베고 대자로 누워 잔다거나, 매일 매일 시트콤을 찍으며 산단다. 하얀 고양이 웅이를 키우게 된 데에는 더욱 특별한 사연이 있다. 부엉이를 닮아 웅이라고 불리는 웅이는 201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문득, 김 대리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파트 4층인 그의 집 앞에 꺾쇠죄한 모습으로 울고 있던 가녀린 웅이. 인터넷으로 종을 찾아봤더니 페르시안 친칠라인 듯했지만 보살핌 없이 망가진 모습에선 여지없이 길고양이 티가 났다.



그렇게 찾아든 웅이를 김 대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맹렬히 구역 싸움을 하던 두 고양이도
이제는 서로를 '옆에 있는 고양이' 쫘으로 시크하게
생각하며 우아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단다.
그땐 “키웠지만”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는 김 대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끝까지 함께한다는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민수와 웅이는 이미 그의 삶에 커다란
의미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민수와 웅이를 책임지며,
함께 재미있게 살아가기. 혹시 초식남이냐는 질문에
“고기는 좋아하지만, 같이 먹을 분이 안계시네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김 대리. 그는 같은 곳을 바라봐줄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그들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책임감이죠.
민수와 웅이는 이미 제 삶의 의미예요.



그에게 뭐, 헬크라던가 슈퍼맨 같은 반전은 없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능력이나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가진 반전이라면 그냥 보기보다 자상하다는 정도?
책상 앞에서 일에 대한 고민으로 얼굴은 무표정해도
말을 걸어오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거든요.
사실 고양이 앞에서는 항상 상냥하게 웃지만요.”
고양이를 키우는 목직한 공학도, 김윤규 대리의 두 얼굴.
물론 남자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새삼 특별하거나 다를
것도 없다. 하지만 민수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웅이에게
형이 되어 지낸 시간들은 보통의 따뜻한 마음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를 만나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고양이와 연신 입을 맞추는 순간순간이었다.
어쩌면 이토록 고양이를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할 수 있는 건지.
그와 시간가는 줄 모르는 인터뷰 중에 알게 된 더 화승인
바이러스 같은 사실 하나. 4년을 근무하는 동안 사내 식당의
밥과 반찬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는 농사를
지으셨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밥 한 톨, 생선 가시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먹어치운단다. 이것 또한 남다른 그.
반려 고양이와 가족이 되어 삶의 소소한 위안을 찾는
그에게, 이젠 그와 사랑하며 평생 반려자가 되어 줄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파트 4층 문 앞에 나타나 주길
영동하게 바라본다. 🇰🇷🇨🇪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대륙의 고무적인 신발 공장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를 소개한다.

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

大陆地区鼓舞人心的制靴工厂

随着中国劳务费用的持续增长，劳力供求方面的难题将一直持续下去。给大家介绍在这样的环境下能够游刃有余的应对各种困难而不断努力的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

Writer + Photo 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 Manufacturing Excellence Team 金明浩 代理

대륙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한 전략적 공장

고구려 천리장성의 끝자락 비사성을 품은 중국 동북3성의 관문 요녕성 대련에 위치한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이하 장천제화). 이곳에는 14명의 한국 관리자와 2,800여 명의 중국 직원들이 엄격한 품질관리와 생산관리를 바탕으로 ‘Quickest to Market’비전 달성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08년 6월 풍원제화를 인수한 장천제화는 끊임없이 생산량을 늘려 현재 HSD라는 코드명으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연간 700만 켤레 이상 생산하고 있다. 장천제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디다스 NEO 카테고리인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하면서 러시아와도 가까운 장천제화의 지리적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한 운송이 이루어져 러시아는 물론 유럽 시장까지 빠른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아디다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장천제화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位于大陆关口的战略型工厂

位于怀揣高句丽千里长城边缘卑沙城的东北三省主要关口的辽宁省大连市的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以下简称长川制靴）以14名韩国籍管理人员和2,800名中国籍员工对产品质量的严格把关和生产管理为基础，为了达成 ‘Quickest to Market’ 的飞跃目标不断努力。2008年6月收购丰源制靴的长川制靴不断增强生产量，目前以代码HSD每年生产700万双以上阿迪达斯运动鞋。长川制靴生产的阿迪达斯NEO系列的运动鞋，以中、俄为中心不断扩大，体现出位于中国并且临近俄罗斯的长川制靴的地理优势。今后如果可以实现通过横断西伯利亚的列车将运输便捷化，更快的向俄罗斯和欧洲市场的供给商品，身为阿迪达斯战略伙伴的长川制靴的作用将愈加明显。

인건비 증가와 인력 수급난에 유연하게 대처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목표에 따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련 지역에서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어 2008년 인수 당시 5천여 명에 달하던 대련 공장의 인원이 2014년 4월 현재 1,200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천제화의 생산량은 연간 500만 켤레에서 700만 켤레로 증가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장천제화는 그 해답을 도요타 방식의 생산 시스템에서 찾았다. 외주 공장에서 각종 신발 부품을 공급받고 대련 공장에서는 제조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몽고자치구 톈료에 자체 제조까지 가능한 공장을 세웠고, 청도의 갑피 공장을 인수했다. 또 대련이 속한 요녕성의 정신, 푸신 지역의 협력 공장에서 갑피를 공급받고, 베트남 화승비나에서도 갑피와 아웃솔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하는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의 사업 모델을 도입하면서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천제화에서는 무엇보다 품질 최우선의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생산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봉문 이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각 공장과 협력 업체 간의 일사불란한 연결 고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노사 및 협력 업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 활동을 통한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한 “항상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초고속 납기 보장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세계 제일의 신발 공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장천제화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다.

공장과 협력업체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자동화 설비 구축, 노사 및 협력 업체의 일치된 마음이 장천제화의 비결이다.



灵活应对劳务费用的增长和劳动力供给不足的难题

随着中国在2020年GNP将超过2010年GNP的两倍的目标，大连的劳务费与其他城市同步上升。不仅如此劳务供给也有一定的困难，由2008年的5,000名工人减少到2014年4月1,200名工人。在这种形势下长川制靴的年生产量竟然由500万双增长到700万双。其中的秘诀到底是什么呢？长川制靴在丰田的生产系统中找到了答案。就是从外围的工厂接收各种鞋子的部件而大连只负责制作。为此，在内蒙古自治区通辽设立了制造工厂，收购了青岛鞋帮工厂。从大连所属的辽宁省正新，阜新地区的协作工厂接收鞋帮，在越南也接收鞋帮和鞋底等部件的生产模式解决困境。所以在长川制靴管理好优质品质的供给网是关键。为此负责生产和管理的安奉文理事强调 “与远距离各个工厂的供应链管理很重要，为此构建了实时信息共享系统，并引进了提高生产性及品质保障的自动化设备。所以劳资和协作部门共同追求变化是相当重要的。以保障可以感动顾客的最高品质和服务，快速出货保障为武器，以成长为世界第一的鞋业工厂为使命感奋勇直前。” 相信长川制靴的未来是一片光明的。🇰🇷🇨🇳🇻🇳

직장생활 갈등 해소 필살 비법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다.
주변의 퇴직 사유를 들어보면 일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직장인이 더 많고
실제 통계에서도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이직사유로 인간관계가 꼽힌다.
이왕 해야 할 사회생활, 이런 갈등 없이 유연하고 즐겁게 어울릴 순 없을까?



유치원 때부터 취업 전까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별로 없다. 싫은 사람은 안보면 그만이니까. 어린 시절엔 “너랑 안 놀아!” 한 마디면 관계정리 끝이고 대학생 때에는 싫은 사람을 피해 강의를 신청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이런 식의 “너랑 안 놀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마주하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주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사나 후배와의 갈등으로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리의 직장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고무와 같은 ‘유연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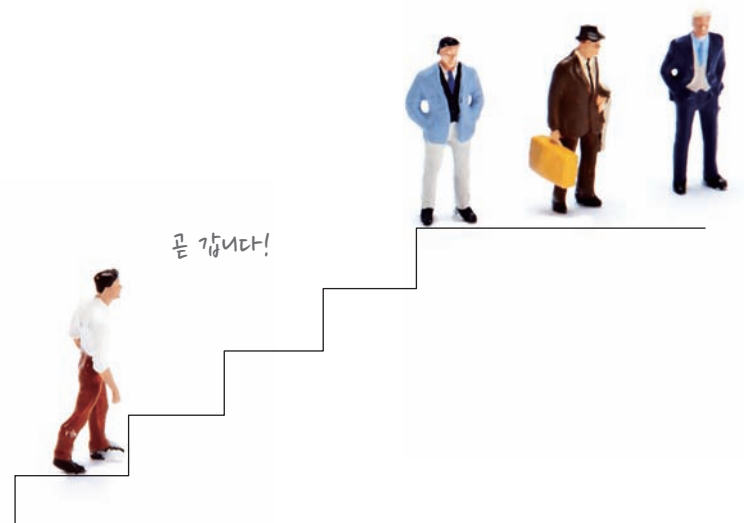
(남자 상사와의 갈등
친구는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김 대리는 오늘도 회사 가기가 싫다. 나만 보면 으르렁대는 최 부장 때문이다. 출근하자마자 어제 시킨 일 왜 안 했냐고 무섭게 다그치는데, 밤에 퇴근하면서 던져준 일을 아침에 못했다고 화내는 최 부장을 김 대리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최 부장님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남자는 아주 단순하다. 남자 상사의 눈에 예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미운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다. 만일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 못함’을 미워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사람을 꾸중하는 데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할뿐더러 혼낸 사람의 마음도 좋지 않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사들은 자신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을 알면서 부하직원을 혼내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할 건 없다. 내가 예뻐서 혼내는 건 아니니까.

남자 상사와의 갈등은 상사와 나의 의견이 다르거나 상사가 원하는 바에 맞추지 못할 경우 즉, 업무 때문에 발생한다. 이럴 땐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테크닉을 발휘해보자. 적으로 느껴지는 상사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 보고하고 지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어필하고, 업무 성과가 났을 때엔 지침을 준 상사의 공으로 돌려보라. 그때부터 상사는 당신을 친구이자 믿을 만한 부하직원으로 생각할 것이다. 남자 상사와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입사원 이 모씨는 여자 차장을 모시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상사가 남자라면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 술 한 잔 하면서 “실은 이런 점 때문에 많이 힘들니다”라고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 상사에게는 영 어렵다. 업무를 할 때에도 특히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신입사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남자가 on/off 스위치만 있는 라디오라면 여자는 on/off 외에도 각종 조절 장치가 복잡하게 얹혀있는 대형 오디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갈등의 요인이 얹혀있을 수밖에. 복잡한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마치 350년간이나 수학의 난제로 남아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 자신도 모른다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어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상사가 화를 내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보다’, 뜬금없이 잘해준다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상사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면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감적 접근’이다.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상대방의 감정선을 이해하면 갈등 해결이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다. 상사의 업무 방식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의 보고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혹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적 접근이 필요하다

30대 중반인 박 과장은 “나 한창 때는 아파도 일하러 나왔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말에 호응해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이제는 마주치는 것도 지친다. 그래도 윗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 박 과장은 오늘도 죽을 만큼 아프지만 일하러 나왔다는 김 부장님께 웃는 얼굴로 업무보고를 한다.

요즘 사회에서 ‘나이 많음’은 더 이상 벼슬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Know-How보다 Know-Where가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이 좋은 젊은 세대가 더욱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 40대 이상 상사들은 억울하기만 하다. 한창 자라나던 꿈나무 시절에는 장유유서의 가르침을 받아오다가 막상 공경 받아야 할 어른이 되자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가요?”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것들이란”이라는 말을 여과 없이 뱉어 내는 구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상사를 바꾸려면 그가 살아온 시절만큼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구세대가 겪은 경험과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당신은 선배님이시니”, “당신은 경험이 많으시니” 운을 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보자. 상사가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표현하면 당신은 문제해결과 업무성과라는 실익을, 구세대는 어려움에 처한 후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을 얻을 수 있다.



구세대와의 갈등 그들의 시간을 인정하자

박 부장은 요새 신입사원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우리 때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감히 일어날 생각을 못 했는데 요새 신입사원들은 회식을 하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며 빠져나간다. 부서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해도 자기 일, 남의 일을 구분하면서 볼멘소리를 한다. 성질 같아서는 한바탕 야단치고 싶지만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라 하니 말은 못하고 그냥 화만 참는다.

사실 상사와의 갈등을 겪는 부하들이야 얼마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술자리에서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사를 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 아니던가. 그런데 진짜 속앓이는 바로 부하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상사가 한다. 부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못한 상사로 비춰질까 그런 고민을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부하와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수학공식처럼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하마다 상사에게 서운한 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또는 부하일 때 상사에게 섭섭했던 경우를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상사가 되면 저렇게는 안 할 거라고 결심했음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자. 특히 부하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상사의 유형,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특정 부하를 편애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아도 웬만한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지각은 전날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부하의 지각은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상사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부하와의 갈등 나를 돌아보자

앞서 제시한 방법들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죽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부서원들 또는 같은 회사 사람들과 매끄럽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 역시 나의 과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의 하나가 된다. 자, 우리 ‘고무’처럼 업무에 임하자.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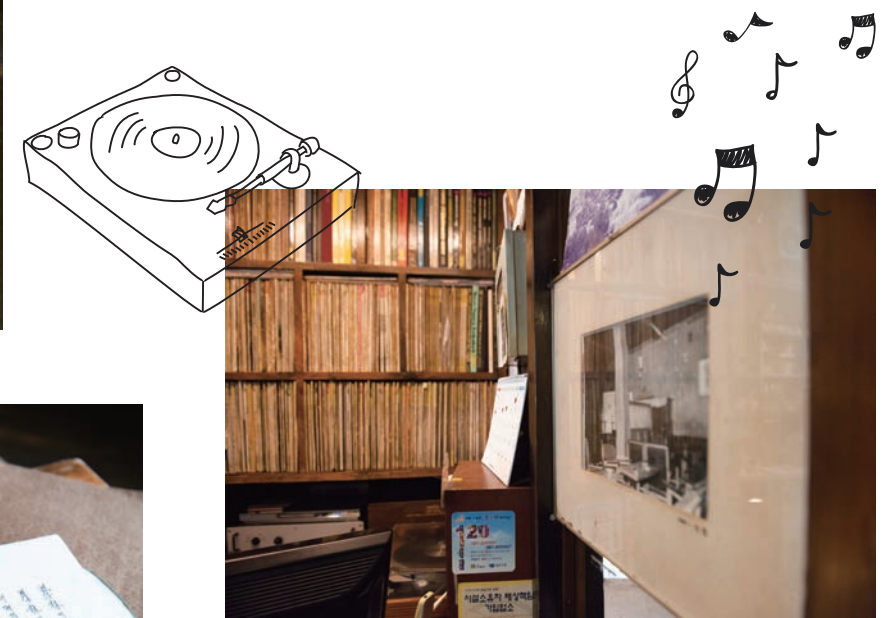
Photo Space

70년대 문인들의 아지트

학림다방



빼격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가자 은은한 교향곡이 흘러나왔다. 가끔 LP판 위에 올려진 바늘이 튀기도 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소리가 더 정겹다. 하얀 찻잔에 담겨 나온 커피에 노란 각설탕 한 개를 떨어트려 넣고 후루룩 한 모금 마시고 있자니 모든 감각이 즐거워진다. 아직 대학로가 생기기도 전, 1956년에 문을 연 학림다방이 간직하고 있는 소소한 행복이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 한 집 걸러 한 집이 카페인 요즘, 단골손님보다는 뜨내기손님의 방문이 잦고, 어제 생겼다가 내일 사라지기도 하니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없다. 그에 반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학림다방은 벌써 반세기째 같은 자리에서 단골들을 맞이하고 있다. 빼곡히 꽂혀있는 LP판만큼이나 거쳐 간 이들의 사연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오래된 다방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 이곳에서 황석영, 김지하, 천상병 같은 문인들이 문학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누기도, 1980년대의 뜨거운 피를 가진 청년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궁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림다방이 최근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다방으로의 명맥을 잇기 위해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방을 찾는다. 시간을 품고 있는 그곳 학림다방. 오랫동안 이곳을 사랑해온 이들과 새로이 찾는 이들의 융합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DBT 사보 독자인 김석현님이 추천해주신 추억의 공간입니다.

어찌됐건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네

거리의 것들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추억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간 건물들 사이, 아속한 세월의 흐름에 잘 대처해낸 기특한 공간들을 만났다.





추억을 먹고사는

허리우드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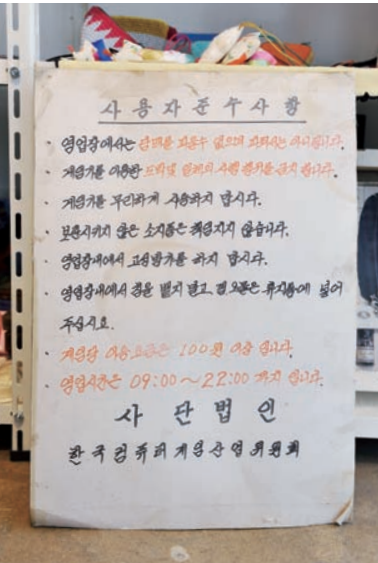
대한 뉴스와 애국가가 흘러나와야지만 영화가 상영되던 시절. 인기 있는 영화를 보려면 꼭두새벽부터 극장마다 돌며 표를 구해야 했다.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압표를 사야했지만 힘들게 구한 표를 품고 상영시간을 기다릴 때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1969년 낙원상가와 함께 개관한 종로의 허리우드 극장은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점점 쇠락해 갔다.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김은주 대표에 의해 2009년 실버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55세 이상 관람료 이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고전 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화생활을 누릴 곳이 없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였다. 한 달을 기다려야 겨우 볼 수 있었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등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극장 또한 제2의 전성기를 되찾았다. 중절모와 나비넥타이로 한껏 멋을 낸 노신사는 일주일에 꼭 한 번 이곳에 온다고 했다. 영화도 영화지만 힘든 시대를 함께 지나온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잘 알기에 김은주 대표는 판권을 구해오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두근거림을 찾아 모여드는 황혼의 이들에게 있어서 실버극장은 황금보다 귀한 뜨거운 공간일 테다.



서촌의 마지막 오락실

옥인상점

세상 가장 불쌍한 얼굴로 엄마에게 “나 백 원만”을 외치던 시절. 목표는 동네 오락실 스트리트 파이터 상위 랭킹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었다. 처음에야 별다른 스킬 없이 검지와 중지로 버튼을 재빠르게 누를 뿐이었지만 한 살 한 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살기인 ‘아~도겐’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가끔은 난이도가 쉬운 보글보글이나 테트리스를 즐기기도 하며 유년의 청춘을 다 바쳤던 오락실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던 서촌의 마지막 오락실인 ‘용 오락실’도 그렇게 없어질 위기에 놓였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오락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서촌 토박이 설계우 작가는 추억이 서려 있는 용 오락실의 소멸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카페가 들어설 뻔했던 자리에 ‘옥인상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 시절 초등학교생의 사랑방처럼, 동네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구멍가게, 혹은 잡화점이라 불리는 옥인상점은 서촌 주민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공간이요, 잠시 들른 객들에게는 그 일대를 안내하는 안내소 같은 곳이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아케이드 오락기는 모두 처분했지만, 당시 오락실에서 사용했던 인형뽑기 기계와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알림판은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게를 내놓고 강원도로 훌쩍 떠나신 용 오락실의 주인 할머니 사진이 스멀스멀 옛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곳. 옥인상점에는 아직 용 오락실이 살아있다. 🇰🇷



Bounce Bounce



통:통 튀어 오르는 예측 불허한 즐거운 상상.
답은 하나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답이기에
유연한 크리에이티브의 버전을 높여갑니다.

In, Out, 너와 나 사이 닫힌 문을 여는 유연함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주간회의가 돌아온다. 어떤 주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지만 또 어떤 주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다. 바로 우리 회사가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인 품질문제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마다 고무라는 물질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고무의 특성상 원자재의 배합조건, 물성, 온도, 공정, 설비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필수적 요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고무의 유연함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용자들에게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함이 필요한데, 이 유연함 또한 거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연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품질문제로 고객불만이 접수된 이후 내부 긴급회의가 소집된 가상의 상황을 통해 생각해보자. 여러 부서가 모인 자리에서 담당자인 김 대리가 브리핑을 한다.

“A 고객사가 오전에 품질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속히 원인을 밝혀 대응해야 합니다.”
 “저건 우리 부서 문제가 아닌데?”
 “그쪽 부서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글쎄요, 이번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오전 중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무의 유연함은 결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가치가 제공되는 것이다.

최초 브리핑을 했던 김 대리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결국 긴급회의는 시간만 보낸 채로 마무리되었다. 김 대리는 고객으로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를 마지못해 듣고만 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몸담은 조직이 유연함을 갖추려면 어떤 경영환경에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즉, 직원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직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늘 발생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의 틀이 결과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위와 같은 긴급회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이번 A 고객사 품질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우리 부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미처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네요.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럼 각자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종합하여 오전 중으로 대응책을 마련합시다.”
 김 대리는 빨리 A 고객사에 전화해서 해결방안을 곧 제시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위의 두 대화는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해결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전혀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부서가 품질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신속한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유연한 고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또는 조직 전체의 유기적인 연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속한 부서에서의 조그만 문제가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모든 임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질 좋은 고무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그냥’요! 김종상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달려가다 보면 숨이 가쁘다. 흘러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주위를 둘러보며 걸을 순 없을까.
여기 정해진 목적지도, 규정된 속도도, 번지르르한 이유도 없이 ‘그냥’ 주어진 순간을 즐기며 걷는 이들이 있다.
김종상가 관리인 박길중, 김윤하, 송대영을 만났다.

재미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태원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 구불구불한 길 중간 즈음
간판 없는 김종상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가로운
공기에 둘러싸인 그곳에선 여유 가득한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김종상가는 가구점 겸 조명 가게 겸 인력 사무소이자 가끔은
행사를 기획하는 에이전시다. 관리인 세 명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만능 상가랄까. 박길중은 주로
가구 제작과 설치, 김윤하는 식물 가꾸기, 물건 모으기,
조명 만들기, 송대영은 김종상가에서 소비되는 이미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말은 이렇지만 사실
하는 일도, 파는 물건도 정해진 건 없다. 결국 만들어달라는
건 다 만들어주고,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준다.

“낙원상가나 세운상가도 주 판매 품목은 있지만 입점한
사람들이 다양해 딱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것처럼
김종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상점을 운영하면서 전혀
색다른 무언가를 함께 기획·진행하기도 하지요.”
김종상가가 처음 문을 연 것은 2010년. 이들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이라는 일관적 대세에 따르지 않고 창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뭔가 건설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박길중의 평화로운 얼굴에 거짓말처럼 ‘그냥요’
세 단어가 쓰여 있다.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상가를 만든 건
아니예요. 물건 만드는 일을 하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싶어 ‘김종상가’라 이름 붙이고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요. 길을 걷다가 임대 나온 공간을



발견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계약하고
똑딱똑딱 공사해서 오픈한 게 오프라인 활동의 시작이네요.”
그렇게 길종상가의 실제 상가가 생긴 지도 어언 2년. 중간에
한 번 거처를 옮겼다는 말에 상가가 잘 돼서 확장 이전한
거냐고 들뜬 마음으로 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온한 어조의
덤덤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니 그냥 집이랑 가까워서…….”
이렇게 정해진 틀 없이 흘러가는 길종상가지만 이들이
벌이는 일의 정체성만은 뚜렷하다. 그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다. 초록 파프리카와 오이, 실파가
웅기종기 붙은 조명, 유연한 곡선의 티테이블, 엽서
스타일의 만화책 등 이들이 만드는 모든 것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묻어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고객의 주문사항에 본인의 스타일을
가미한다는 그들. 그들의 통통 튀는 작품엔 쥐어짜내야 하는
창작의 고통이란 없다. 다만 자연스레 흐르는 취향과
자유롭게 발현되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일단 저지르고 봅시다

새로움으로 무장한 작품 외에도 길종상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흥미로운 테마에 따라 기획되는 ‘프랑스 빈티지 원피스
대전’이나 ‘코트 대전’ 등의 옷 판매장이 열리면 길게 늘어선
손님으로 한적하던 골목이 북새통을 이룬다.
또 타이포그래퍼 김기조,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 1
준우승자 박준우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해
신청자들과 함께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듣말마
(듣거나, 말하거나, 마시거나)’는 이미 7번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이다.
“저희는 기업처럼 정해진 매출 목표나 경영 목표가 없으니
편안하게 일을 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엄청나게 힘들지만 세 명이 이 일을 해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죠.”
이들이 벌이는 일마다 뱅뱅 터뜨리는 데에 치밀한 계획이



1



2

길종상가 작품들

1 바나나·레몬·배·파프리카로 만든 노란 조명, 파프리카·오이·실파로
만든 초록 조명, 일명 ‘색끼리끼리 다 있다 조명’ **2** 포토그래퍼
하시시박과 타이포그래퍼 김기조가 참여·제작한 제5회 듣말마 포스터
3 관리사무소, 매표소의 기능을 하는 이동식 길종상가 **4** 자주 가는
축발집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일력



(왼쪽부터) 박길종, 송대영, 김윤하



3



4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사를 얘기하다가 괜찮다
싶은 건 시도해보는 ‘저지름’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거다!” 싶으면 흥분해 저질렀다가 수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기술도 늘었다. 정형화된 틀
없이 재미있는 것,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저희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져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다만 그걸 저희 방식으로 풀어서 응용하는 거죠.
앞으로 길종상가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완성해나가려고요.”
누군가는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한다. 보고 듣고 느끼며
많은 깨달음으로 내일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여행길에
오른 사람 중 누군가는 목적지와 일정을 맞추며 정확히
짜인 여행을 즐길 것이고, 누군가는 정해진 루트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구석구석 둘러보는 여행에서 진정한 묘미를
느낄 것이다. 길종상가는 후자다. 숨 고르며 걷다가
재미있는 곳에 하루 이틀 더 머물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축제를 즐기기도 하며 그렇게 매 순간을 즐기는 멋진
여행자들. 끝없는 그 길 위에서 이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일을 많이 저질러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에게겐 생각지
못한 신념으로 다가올 테니까. 🇰🇷

girl의 화장대 위엔 소총과 BB탄이 있다

서울 용산 미군부대 인근의 한 스튜디오. 군복을 입은 여성의 촬영이 한창이다.
사용감이 느껴지는 총을 들고 포즈를 잡는 모습이 꽤 능숙하다. 보통 마니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여자라니! 올해 나이 방년 24세,
꽃 같은 얼굴에 화끈한 총질로 여러 남자 잡는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팀 안현경 사원을 만났다.

바다 소녀, 서바이벌의 매력에 빠지다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총에 대한 로망을 가져봤을 거다.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영웅본색〉주윤발의
총 쏘는 솜씨에 껌뻑 죽어 문방구에서 팔던 모델건 앞을
기웃거리던 코흘리개들. 하지만 소녀가 어릴 적부터 총에
관심이 있었을리는 만무하다.

“울진이 고향이에요. 어릴 땐 바닷가를 산책하던 감성적인
소녀였어요.”

실제로 그녀는 매우 수줍게 인터뷰에 응했다. 물론 한번
보고 믿을 순 없지만. 수줍은 바다 소녀의 취미는 여느
언니들과 달리 점점 격해져만 갔다.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왔던 그녀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한때 서핑에 폭
빠지기도 했다.

본격적인 그녀의 총질은 2012년 가을,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됐다. 처음엔 산에서 가볍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얼굴을 내비쳤던 서바이벌 동호회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렸다. 성격은 수줍음이 많지만 선천적으로
야외활동을 좋아해서일까. 때론 야산을 이리저리
종횡무진하고, 때론 숨을 죽이고 적진에 침투하는 서바이벌
게임의 매력에 폭 빠지고 만 것이다.



스트레스를 향해 쏘라!

안현경 사원은 입사 후 서바이벌 게임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해외구매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합구매팀에서 제품 수·발주 및 마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 늘 시간에 쫓기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업무인지라 주말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절로 재충전 된다고.
사무실에서 늘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얼굴로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에선 도저히 연상되지 않는 취미생활이다.
“스트레스까지 덩달아 탕~ 하고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 맛에 장비와 복장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지요! 좀 비싸긴
하지만…, 멋있지 않아요?”



안현경 사원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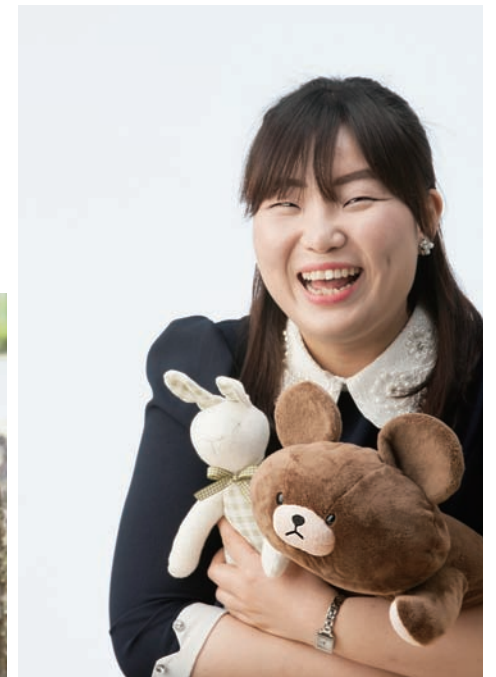
의외의 취미생활이지만 그녀에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활동이다. 게다가 그녀만의 상큼하고 건강한 매력으로 동호회 회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기까지. 물론 처음엔 행여나 다칠까봐 보호 장비를 확인해주는 등 온갖 보살핌을 받았다. 하지만 터프하게 게임을 운용하는 모습에 그 보살핌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그래도 회원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즐길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하다.

그녀는 스릴 넘치는 한바탕 치르고 난 뒤면 언제나 수컷들이 으르렁대는 뒤풀이 자리로 향한다.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며 삼촌들을 깨갱하게 만드는 암사자 안현경의 위력.

“운동량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뒤풀이 때문에 망했어요. 막걸리, 소주, 맥주 등 술이란 술은 다 있거든요! 서바이벌 게임 자체도 즐겁지만 역시 동호회는 뒤풀이죠. 호호호!”

지킬 건 지키는, 순도 100% 서바이벌 마니아

모델 건이라도 불법개조를 하면 엄청난 위력이 생기기에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위험하다.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건 그녀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안현경 사우는 자신이 서바이벌 게임을 진정으로 즐기는 마니아인 만큼 안정성을 위해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단다. 또한 모델건의 생김새는 실제 총과 똑같기 때문에 일부분을 칼라파츠(Color Parts)로 장착해 구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모델건이나 복장이 아무래도 고가인 데다 국내에 전문 게임장이 많이 없어 더욱 마니아층이 두터운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일단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인 취미생활이에요.”

총기를 정비하다 잠이 들고, 베개 옆엔 언제나 애인 ‘M4-baby’가 있다는 안현경 사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자의 취미는 꼭 여성스러워야 하는가 싶었다.

수줍게 베개 아래 총을 품고 사는 그녀야말로 어쩌면 소녀적 감성이 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성스러움에 반전을 꾀하고 싶은 여인들이여, 지금 당장 BB탄을 장전해 발사해보라.

짜릿함을 느낀다면, 당신도 아마추어 특공대원! 🇰🇷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다”, “술보다 아내가 무섭다. 그래서 일찍 가겠다” 등 수많은 애처가 어록을 만들어낸 화승공조 경영관리팀 조인희 대리.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을 닮은 조 대리를 그의 고향 안성에서 만났다. 추억의 장소를 소개해 달랬더니 쿨하게 옛 연인들과의 데이트 장소를 기억해낸 그. 덕분에 대한민국 사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인희 대리의 총각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와 더불어 데이트 기술까지 전수받을 수 있었다. 부디 이 글을 조 대리의 아내분께서 보지 않기를 빌며(?) 조심스레 소개해본다.



첫 번째 데이트 기술,
향기에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라!

데이트는 역시 꽃구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조 대리가 옛 여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던 시절, **안성허브마을**은 말 그대로 향기로운 허브와 꽃이 가득해 안성 사람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허브랜드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레스토랑, 펜션, 산책로, 허브용품 판매점 등 허브와 관련된 다채로운 이벤트를 체험이 가능하다. 애인과 싸우고 난 뒤 허브랜드에서 진한 허브향을 맡으며 마을 안에 있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작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저절로 화해도 되고, 스트레스까지 해소된다는 조 대리의 조언. “어머, 이걸 메모해야 돼!”

화승공조 조인희 대리의

으리으리한 안성 데이트 코스

주의

이 글은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해 재구성된 글입니다. 소개되는 데이트 코스는 조인희 대리 부부가 모두 다녀왔던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니 오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데이트 기술, 절경의 금광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셔라!

호수 같은 그대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이 가능한 곳, 안성에도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가릴 것 없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카페 벤치에 앉아 사랑을 나누는 연인을 그려보라. 안성 금광호수 앞 **세렌디피티 카페**는 조인희 대리가 애인과 함께 반드시 들렀던 필수 데이트 코스. 도심에서 떨어져 조용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이곳은 식사부터 야외 바비큐 시설까지 완비된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 금광호수 주변에는 소문난 맛집들이 많고, 조각공원과 음악이 잔잔한 청학대 미술관도 둘러볼 수 있다. 금광호수를 끼고 산림이 우거진 도로변을 따라 진천방향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도 일품이다. 조 대리의 '끝사랑'인 아내분과도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



세 번째 데이트 기술, 아름다운 성지로 안내하라!

은하수라는 뜻의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름 지어진 **미리내 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성지 내에 있는 미리내 성당은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성당이기도 하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회는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미리내 성당은 천주교 103위의 시성(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 바오로 2세가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諡聖式)을 거행함으로써 이들은



이별을 극복하는 기술, 시원한 묵밥에 막걸리로 풀어라!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는 법, 안성에서 이별에 대처하는 독특한 방법을 조 대리가 전수한다. 미리내 성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삼 묵밥**. 안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토리 묵밥집이다. 옛 시골집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삼 묵밥집은 다른 곳에 비해 도토리 특유의 알싸한 맛이 적고 부드럽다. 감칠맛 나는 육수와 성큼성큼 썰어 말아놓은 도토리묵으로 배를 채운 뒤, 도토리 빈대떡과 함께 막걸리 한 사발 쪽 들이키고 나면 이별의 아픔이고 뭐고 다 잊힐 것이라는 조 대리의 여유. 옛 연인들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한 작은 연습이었을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고즈넉한 묵밥집 마루 위에서 데이트 코스 소개를 마무리했다. 🇰🇷



복자에서 성인의 품위로 오르게 되었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기념성당 뒤편으로 난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의 순교 과정이 담겨 있는 청동조각 15점이 서 있어 성지의 장엄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김대건 신부의 무덤과 하악골이 모여져 있는 성당, 김 신부의 동상, 성모성당, 계제마니 동산(여기저기 나뒹구는 바위를 자연 그대로 이용한 동산) 등을 돌아보는 데 2~3시간이 소요된다. 조 대리는 심신을 경건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데이트를 하는 연인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 말한다. 특히 성당 내부의 은은한 불빛과 온화하고도 웅장한 기운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텅 빈 성당에서 사진 속 조 대리는 과연 무엇을 빌었을까?



나를 쫄깃하게 만드는 것들

어느새 순수한 마음은 저 멀리 한 켠에 놔두고, 하루하루 바빠 살아가는 나.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이런 삶이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온 인생이라며 나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킬 때 쯤 나에게 다가와 준 그것들. 세상을 더 즐겁게, 인생을 더 쫄깃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화승엑스윌 특수물설계파트 김영춘 대리

내 안의 본능을 일깨우다

얼마 전 한국사격연맹에 선수등록을 마쳤다. 신체검사, 약물검사, 정신 관련 테스트까지 완료하느라 번거롭긴 했지만 사격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면야. 20살 무렵 우연히 올림픽 중계에서 본 클레이사격. 1년 6개월 전, 지인의 지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창원종합사격장에 달려갔고 결국 클레이사격용 총기를 구입하기까지 이르렀다. 날아가는 주황색 접시

를 눈으로 쫓을 때 순간 집중력, 탄환 쏠 때의 시원한 소리, 어깨에 견착된 총의 반동, 그리고 접시가 산산 조각나면 뒷목에서부터 척추까지 전율이 느껴진다. 비용도 꽤 들고, 창원종합사격장까지는 제법 멀지만 나는 사격을 멈출 수가 없다. 사격장의 풍경도 아름답고 공기도 맑아 지인들에게 데이트 코스로 추천하니 다들 그러더라. 빨리 장가나 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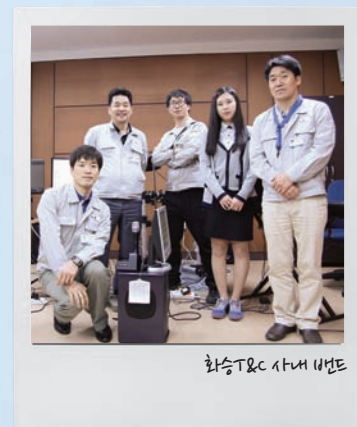
화승그룹 회장실 재무팀 이견우 사원

단 한 번도 같은 파도는 없다



서핑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2002년, 처음엔 한국에서 무슨 파도를 타냐며 손사래를 쳤다. 단순히 여름 바다가 좋았고,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가 좋았다. 그러다 우연히 전국을 누비며 자유를 즐기는 한량(?)을 만나 서핑에 입문하게 됐다. 멀정한 다리에 생채기는 물론이요, 비싼 장비를 수차례 부러뜨리고 눈에 모래알이 박히면서까지 서핑 독학의 길을 걸었다. 서핑은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단 한 번도 똑 같지 않은 파도를 넘으며 보드에 몸을 맡길 때면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묘한 희열이 느껴진다. 자연과 하나되는 기분일까. 커다란 파도 앞에 서면 머리가 빠쪽거리면서도 어느새 파도 위에 있다. 다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을 오히려 반기며 바다에 뛰어드는 나를 이해 못 한다지만, 내게 서핑은 희망이기에 또다시 보드를 들고 파도에 몸을 맡긴다.





화승T&C 사내 밴드

화승T&C 생산관리팀 황정진 과장 내 인생의 1막 2장

교불거려도 너무 교불거렸던 머릿결,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 잘생긴 줄 알았건만... 저런 외모에도 색소폰만 불면 어지간한 여자 마음은 다 뺏을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바로 색소폰 연주가 겸 작곡가 케니G. 나도 것처럼 미래의 아내에게 색소폰을 불며 청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색소폰을 구입했었다. 그 비싼 색소폰을 집에만 모셔둔 지 어언 20년. 그러다 두 해 전,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색소폰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주말이면 동네 주민을 배려(?)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아지트 삼아 연습했더니 어느덧 여러 곡을 마스터하며 사내 밴드의 멤버로 거듭났다.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색소폰을 장난감 다루듯 하는 쌍둥이 딸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내게 긍정의 힘,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색소폰! 실력을 더 키워 언젠가는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다.



두근두근, 행복을 찾아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때는 20살,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이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어머니와 함께했던 보라카이 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를 계기로 여행을 통한 인생의 즐거움이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여행보다 여행을 떠나기 전의 그 느낌을 더 좋아한다. 여행의 시작은 손수 여행 동선을 짜고 속

화승R&A 기획팀 유정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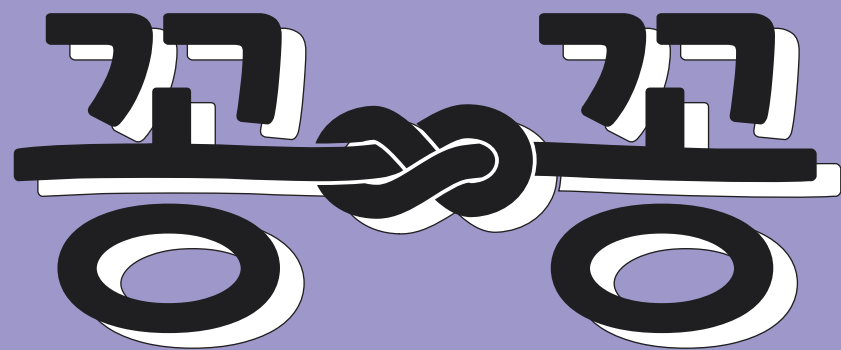
박 예약을 비롯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상상만으로 설렌다. 무엇보다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내일의 설렘을 계획한다. 여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비타민이다. 🇫🇷



고등학교 친구들과 스페인에서...



Tie up



폼:폼 이어주고, 묶어주고, 엮어줍니다.
사이, 사이를 안전하게 이어주는 고무적인 고무!
화승이 열어가는 사이의 과학입니다.

화승T&C 이정두 대표이사

사원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라

1982년 대학 졸업 이듬해 입사한 화승화학(現 화승R&A).

사원 이정두의 하루도 쉬지 않았던 32년 손길이 2014년 3월,

화승T&C 대표이사 이정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화승이 신발 사업에서 자동차부품사업에 연착륙하기까지

그에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늘 가장 소중한 지금이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생산라인 설치 후 약 8개월 만에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에 지금의 바디사이드인 웨더스트립(B/SIDE W/S)인 도어 오프닝을

첫 조립하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화승에 첫 자동차부품사업의 날개를 달았던 그 순간을!

또한 일본에 일부 품목을 납품하던 때 GM의 글로벌 플랫폼인

제이카(J-CAR)를 독일에서 세계 유수 메이커들과

7일간의 수주전에서 승리해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했던 그 순간.

실패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글로벌 화승의 희망 불씨를 지켜낼 수 있었으리라.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5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15분 후 출근하는 습관 덕에 무척이나 고생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의 친구이며, 애인이자, 놀이터이며, 삶의 전부인 화승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함께 즐겨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이 대표, 그는 말한다.

“화승T&C는 웨더스트립, 에어킨호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원가절감과 기술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의 벽을 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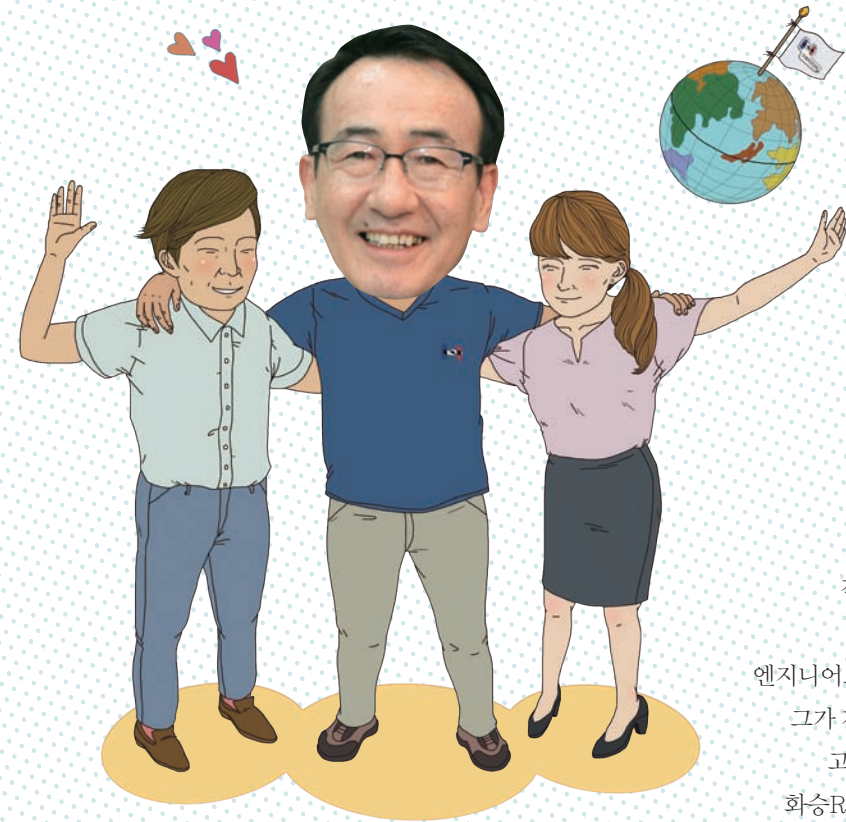
담쟁이 인재가 필요한 화승T&C-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품인 자신감이란 옷을 입고,

미래의 행복한 화승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32년 사원의 마음으로 자동차부품의 한 길을 걸어온

그가 이제 사람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

고무에 감성을 담고 경영에 공감을 담다

작년 8월, 간암을 선고받고 이별을 고했던

그가 기적처럼 돌아왔다.

엔지니어로 화승R&A에 청춘을 바친 청년 허성룡.

그가 지난 3월, 첨단 고무소재 기업 화승소재의

고무전문가 허성룡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

화승R&A FL 사업부에서 자동차 호스(Hose)의

기술개발과 설계를 담당해왔던

그는 호스 개발 기술을 배우며 설계를 겸한

엔지니어로서 25년의 연륜을 쌓았다.

에어킨 호스(A/C Hose)의 기술도입 및 투자를 확정 한 후,

국산화가 수년째 지연되어 기술 개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신의 한 수를 뒀다.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 순간,

그는 소재의 소중함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

폭스바겐 차종의 파워스티어링 호스(P/S Hose)를 한참

개발하던 시절, 문제가 발생해 휴가도 반납한 채

개발팀 전원이 한 달 동안 함께 합숙하며 폭스바겐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던 그 독심을 잊을 수가 없다.

늘 주변의 동료와 화승가족을 먼저 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을 지켜온, 2014년 화승의 고무전문가 허 대표.

그는 현승훈 회장의 108배에 큰 감명을 받아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오늘을 다짐한다.

소재가 제품을 리딩하도록, 기능이 감성을 품을 수 있도록,

레드오션 속의 블루오션을 창조할 수 있도록

허 대표의 정도(正道)경영이 지금, 시작되었다. 🇰🇷

화승사람들도 모르는 화승인더스트리의 제품 이야기



실생활 곳곳의 화승인더스트리 필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숙한 필름은 화승의 이름으로 완성된다. 제품과 고객의 사이, 거기에는 화승인더스트리 포장 필름의 기술이 숨어 있다.

1969년 풍영화성(주)로 문을 연 화승인더스트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 끝에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필름회사로 발돋움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승인더스트리는 BOPP, PET, 통기성필름 등 포장용필름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첨단 연구기술이 가미된 태양전지 소재필름(EVA Sheet) 사업까지 확장하는 등 필름 분야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더 나아가 자연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포장용필름 제품을 생산하는 화승인더스트리.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는 화승 사람들조차도 잘 모른다. 화승인더스트리는 BOPP필름, PET 필름, 통기성필름, 증착필름 등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 실생활 곳곳에서 몰랐던 화승인더스트리의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제품과 소비자의 사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다

화승인더스트리의 필름은 라면, 과자, 음료수(페트병 라벨 등), 채소 포장지 등과 같은 식품 포장재를 비롯해 기저귀, 흡습지, 심지어 책 커버, 쇼핑백까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역할을 하고 있다. 화승 사람도 몰랐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품질보증본부 정해균 본부장이 포장용필름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필름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부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필름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비자들이 제품과 언제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단성, 광택성, 투명성, 열접착성, 인쇄성 등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성질을 변형하고 완벽한 품질 테스트를 통해 합격한 제품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미래 필름 기술의 실현, 화승인더스트리 연구소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화승인더스트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 연구소는 1990년 ‘미래 필름 기술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설립되었다. 1993년 국내 최초 통기성 필름의 생산을 실현한 이래 열접착증착필름, 합성지, 염료승화형 인화지용 합성지, 각종 통기성필름, 자외선 안정필름, 방담필름, 형광센서 감지용필름, 무광필름 개발과 원료 및 첨가제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투명 증착 방식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알루미늄 증착으로 차단성만 가지던 포장지에 투명성을 더해 세계 시장에 상용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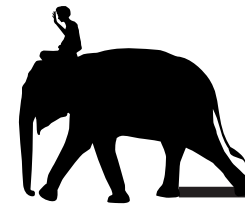
이 밖에도 태양전지 EVA Sheet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화승인더스트리의 필름 사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필름 하나만의 기능성이 아닌 복층화·다층화된 융합 기술을 선보이는 화승인더스트리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





화승비나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12번째 생일 어머니가 있는 풍경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화승비나 정문에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경쾌한 공기가 감돕니다. 평소라면 듣기 힘든 아이들의 까르륵 웃음소리로 일요일의 화승비나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넘치고 평소 아끼던 옷과 아오자이(베트남 전통복장)를 곁에 차려입은 직원들의 발걸음 또한 가볍기만 합니다. 이렇게 화승비나의 12번째 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작업환경

이번 화승비나 12주년 기념행사는 기존 행사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화승비나가 현석호 부회장님과 이계영 대표이사님의 신규 취임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화려해진 무대만 큼이나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창립 12주년 행사는 축제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기념행사는 CCNK-CT 사진전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작년 새로운 화승비나의 조직문화 일환으로 시작된 CCNK-CT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는 캠페인으로 밝고 긍정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화승비나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사진전은 작업자들의 행복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 앞에서 또 한

번 웃음을 지으며 떠날 줄을 모릅니다. 화승비나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사진 전시회장 옆으로 베트남 음식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숨은 요리 실력을 뽐내는 요리대회가 열립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하나 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요리대회가 끝나고 창립 12주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가 베트남을 깨우듯 무대 가득 울려 퍼지며 사자춤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처음 기획한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운 어머니'의 순서입니다. 약 14,000여 명의 작업자



중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은 1,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사연으로 가득합니다. 그중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 못한 애달픈 사연 하나가 북쪽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한 줄 한 줄 읽힙니다. 고향을 떠난 지 7년,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꿈에서만 그리워왔다는 가슴 아픈 사연에 직원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편지낭독이 끝나고 사회자의 '고향을 향해 그리운 어머니'를 불러보자는 말에 수많은 직원들이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목 놓아 부모님을 불러봅니다. 그때 놀랍게도 꿈에서 밖에 만날 수 없었던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운 어머니 프로그램에 선정된 직원은 무대 뒤에서 갑자기 등장한 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모든 직원들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만난 듯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의 박수를 칩니다. 화승비나가 이렇게까지 직원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알기에 감동은 더욱 커집니다. 시상으로 5일간의 휴가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받은 직원은 행복함으로 어머니의 손을 놓을 줄 모릅니다.

가족의 또 다른 이름, 화승비나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었다가 무대는 다시 축제의 장으로 돌아갑니다. 일 년 내내 무더운 여름만 계속되는 베트남에 새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펼쳐진 것입니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직원들의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에 빠져듭니다.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갑자기 아름다운 미녀 10명이 우아한 자태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미스 화승비나 선발전 역시 이번엔 처음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미스 화승으로 선발되면 상금은 물론 각종 행사에 홍보

1 CCNK-CT 사진전 **2** 직원들의 숨은 요리 실력을 뽐내는 요리 대회 **3** 창립 행사에 참여한 현석호 부회장(오른쪽) **4** 무더위를 날려버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퍼포먼스 **5** 이계영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6** 화승비나 직원 단체 기념사진



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작업복을 입은 평소 모습과는 달리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두를 두근거리게한 미스 화승비나 선발전이 끝나고 어찌면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렸을 마술쇼가 이어 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마술사의 손에서 비둘기가 나타나 작은 테이블이 허공을 떠다니기도 합니다. 마술이 하나 끝날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멋진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오고 젊은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연신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럭키 드로우 시간입니다. 총 300 여개의 상품에 대한 당첨자가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영 대표님과 부회장님의 순서에서는 가장 기대하던 스마트폰과 오토바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 됨의 의미를 새겨준 화승비나의 대한 애사심으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어린이들의 희망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을 다시 한 번 깨우쳐준 화승비나의 굳건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내일의 작업 현장을 뜨겁게 밝혀줄 것입니다. 창립 12주년 행사를 맞아 화승비나에는 가슴 훈훈하고 따뜻한 화승의 햇볕 한 줄이 소복이 쌓여 갑니다. 🇰🇷

화승 + 이랑 = 화승이랑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화승그룹사랑나눔농장



흙을 밟아 본 지 꽤 오래됐다. 차가운 감촉의 시멘트 땅이 아닌, 나 지나가면 외롭지 말라고 발자국이란 흙이 뒤에서 따라오는 촉촉한 '흙' 말이다. 화승이랑이 시작되고 직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흙을 밟았을 것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로 발걸음이 향했던 이곳에서, 화승 사람들의 애정 어린 발걸음 덕분에 이곳은 온정 가득한 '화승이랑'으로 거듭났다.

우리 손으로 심은 작은 씨앗이 어느덧 자라 상추가 되어
다시 우리의 손에 올려져 있었다.



화승이랑이 대체 뭐길래

화승이랑은 2014년부터 시작된 화승그룹의 대표적 직원 복지 나눔 프로그램으로 각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이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화승그룹 계열사 22가족이 씨를 뿌렸다. 한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화승 가족들, 시작 전부터 시끌벅적한 웃음으로 화승이랑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화승이랑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땀이 이왕이면 더욱 값졌으면 하는 마음에 “직원들이 충분히 수확한 후 일부를 계열사 식당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자”며 마음을 모았다. 그리하여 사랑 나눔 실천 프로젝트 '화승이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작은 씨앗, 행복의 결실을 맺다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신기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찾아가며 언제 싹을 틔우나, 이 작은 싹이 언제 크나 했건만 갈 때마다 다른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날씨 탓에 야외활동이 불편하리라는 생각은 저만치 달아나고 화승이랑을 충분히 적셔주겠다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었다.

2014년 5월 17일과 24일, 대대적인 숙아주기 및 공동 수확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실 처음엔 숙아주기가 뭔지도 몰랐다. 씨만 뿌리면 나중에 시퍼런 상추와 각종 채소가 저절로 밥상 위에 올라오는 줄 알았다. 뿌리내린 작물이 더 잘 자라기 위해 켜는 ‘성장통’이라고 해야 하나? 얹히고설킨 자리를 정리해주고 잘 자라는 친구가 더 클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작업이 숙아주기다. 직원들의 손은 바빠지고 이미 해는 따스한 봄볕을 넘어서며 모두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영글었다.

“아이고 우린 많습니다. 다 못 먹어예, 이거 갖고 가이소”라며 하나둘 모은 결실이 한 트럭을 가득 채웠다. 2주에 걸친 숙아주기, 공동 수확 작업에서 얻은 총 수확물은 200kg을 웃돌았다. 뜨거운 날씨에 행여나 작물들이 변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자리에서 포장된 작물들은 바로 계열사 식당으로 옮겨져 판매, 다음날 전 직원들의 식탁 위에 한가득 올려졌다.



진짜 행복 나눔을 맛보다

반지르르 매갈 좋은 날씨로 두 서너 장 골라 흐르는 물기 탁탁 털어 본인 손에 올려 한 움큼 먹어 본다.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웬지 모르게 더 달달한 것 같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이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포만감 불러오는 배 불잡고 맛있다며 서로에게 한마디씩 거드는 직원들. 우리 손으로 심은 작은 씨앗이 어느덧 자라 상추가 되어 다시 우리의 손에 올려져 있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는 또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 화승이랑 직원들은 궁금하다. 나중에는 부산 경남 계열사를 넘어 화승이라는 지붕 아래 있는 어느 곳이든 화승이랑의 행복이 배달되지 않을까? 사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어느새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행복 나눔, 마음이 따듯한 화승 사람들의 실천이다. 🇰🇷🇺🇸

Barista



Furniture DIY



Cooking



화승그룹 사회공헌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Cooperation 카페 해인두밀 강지석 바리스타, 기적공장 평생
교육원 이정훈 원장, 한국제일요리학원 박정희 부원장,
공방 수작결기 이병진 대표

매주 토요일이면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에 참가한 화승그룹 직원과 신애재활원 장애인으로 구성된 14명의 '꿈틀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바리스타, 요리, 가구 DIY까지 3곳의 교육장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토해내고 있다.

화승그룹의 직접사업형 사회공헌인 이번 프로젝트는 직원과 신애재활원 지적장애인이 1:1로 매칭되어 장애인 친구들이 평소 꿈꿔온 직업에 관한 교육 활동들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함께 배우게 된다. 단순 체험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된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틀이'들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틀림없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드라마를 보고 시작된 소녀 셋의 바리스타 Dream

몇 해 전, TV를 통해 방영된 <커피프린스 1호점>은 신애재활원에서 함께 지내던 3명의 소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했다.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들의 멋진 직업인 바리스타에 동갑내기 순임 씨와 성은 씨 그리고 한 살 동생 은영 씨가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았지만 꿈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된 3명의 화승 꿈틀이 언니들과 함께 짝을 지어 꿈에 그리던 커피를 내려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 마셔본 커피. 맛을 묻자 “.....” 말이 없어진 그녀들. 아직은 씁쓸한 맛이 낫설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건넬 바리스타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바리스타에 도전하는 화승소재 송해리 대리-손은영, 화승R&A 윤주희 대리-최순임, 화승엑스월 신비 사원-이성은 꿈틀이들.



1 소녀시대를 위해 요리하는 리나 씨.
2 요리사를 꿈꾸는 정리나- 화승T&C 김보라 사원, 유영재- 화승R&A 윤정후 과장 꿈틀이들.

소녀시대를 사랑하는 리나, 삼촌보단 누나가 좋은 영재

리나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팬이다. 소녀시대의 노래는 물론 춤, 생일, 좋아하는 음식 등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팬이다. 평소 요리를 배우고 싶었던 리나 씨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소녀시대 언니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소원이라며 요리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강익에 바짝 귀 기울인다. 하지만 함께 수업을 듣는 영재 군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듯하다. 리나 씨의 짝꿍 화승T&C 김보라 사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영재 군. 본인의 짝꿍 꿈틀이인 화승R&A 윤정후 과장은 뒷전이 됐다. 영재가 자길 좋아하지 않는다면 한숨을 내쉬는 윤 과장이지만, 어째 둘이 함께 요리만 했다 하면 묘하게 죽이 척척 들어맞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2



1 예쁜 책꽂이를 완성한 문효근 - 화승엑스월 이각훈 사원, 오영심 - 화승엑스월 조성진 사원 꿈틀이들.
2 못하는 게 없는 만능엔터테이너 효근.



2

똑딱똑딱, 내 손으로 만드는 가구가 최고!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호기심 왕자인 효근. 평소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난 효근은 공구 만지는 것이 좋다. 현재 마음껏 공구를 가지고 똑딱거릴 수 있는 가구 DIY를 배우고 있는 효근은 자기 작품을 끝내놓고 오히려 함께 배우고 있는 짝꿍 꿈틀이인 화승엑스월 이각훈 사원의 작품을 도와준다. 교육을 진행하는 공방 선생님도 효근의 솜씨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 긍정의 여신 영심 씨는 언제나 본인보다 남이 먼저다. 본인 작품은 뒤로 제쳐두고 짝꿍인 화승엑스월 조성진 사원의 작품 돕기에 열중하다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는 영심 씨. 그래도 싱글벙글 웃으며 늘 “네!”라고 외치는 영심 씨의 긍정 에너지에 가구 DIY팀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가치 창출’

과거 ‘도움’이 위주가 됐던 사회공헌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창출’이라는 국면을 접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에 발맞춘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체험 활동이나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최종 목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이 자립을 통해 만들어 낼 가치가 아직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장애인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이어지는 히즈빈스 카페 임정택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화승 꿈틀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나보세요.



요즘 포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 히즈빈스 커피 (HISBEANS COFFEE). 커피 맛 좋기로 소문난 이곳이 여느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직원 모두가 정신장애인이란 것이다. 이 특별한 카페를 통해 지난 5년간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그 시작점에는 이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임정택 대표가 있었다.



향기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

커피로 사람을, 세상을 바꾸다

장애인이 만드는 커피?
우린 맛과 서비스로 승부한다!

말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있었다.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고객을 맞이하는 바리스타 모두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을 앓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건넨 커피는 충분히 '맛있었다'. "손님들은 자신이 마셨던 커피를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세요. 장애인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편견 때문이겠죠? 저희 히즈빈스를 통해 그런 편견들이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택 대표는 직원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바리스타

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길 바란다. 직원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쏟는 것도 그 때문이다. 채용된 직원들은 6개월에 걸쳐 기초 커피 이론, 실습, 고객 서비스 등 바리스타 전문 7단계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과정이 까다롭기에 도중에 하차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고.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 당 담당 의사, 사회복지사, 시설 및 바리스타 동료 등 8명 이상의 사람들이 늘 곁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만들었죠." 임정택 대표의 배려 깊은 교육 시스템 덕분일까. 히즈빈스는 장애인들에게는 따뜻한 희망이,



손님들에게는 커피 맛집이 되어 5년 만에 포항 시내 7곳에 문을 열었다. 현재는 카페 외에도 저소득층 컨설팅사업 '손을 잡고', 새터민 떡 유통 사업 '꿈꾸는 떡 설레', 로스팅·베이커리 공장 '향기제작소', 직업재활교육원 '향기아카데미'까지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중이다.

스펙 좋은 경영학도, 공익의 삶을 택하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점점 오지랖이 넓어진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임정택 대표. 한때는 그 역시 남들처럼 좋은 스펙을 쌓고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성공하고 싶었다. 그런데 2008년 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경험을 하게 된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13억 인구 중 1억 명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바꿔 중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그 한마디로 인해 충격에 빠졌죠. 지금껏 성공을 위한 창업만을 생각해온 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홍콩에서 돌아온 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공공기관을 통해 포항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들을 무작정 만나고 다니며 깨달은 사실은 딱 하나. 기초 수급자나 장애인 등 소외층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히즈빈스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을 볼 때마다 임정택 대표의 가슴은 벅차기만 하다.



소외된 사람들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결국 임정택 대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히즈빈스 카페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패기만으로 시작한 일이라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찾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벅차기만 하다. "2년 전, 히즈빈스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에까지 골인한 바리스타 분이 계세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허투루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20년 가까이 정신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외롭게 살던 분이 히즈빈스를 통해 사회에 나오고, 결혼까지 하다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감사해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다. 5년째 히즈빈스에서 근무 중인 신만철 바리스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후배들을 양성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커피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히즈빈스가 증명하고 있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화승그룹은 최근 화승 직원과 장애인이 파트너로서 서로 의지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꿈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임정택 대표는 자신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승그룹에서 장애인들도 꿈을 갖고, 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소외된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지역 사회가 바뀌거든요. 그 일을 설계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도 함께하고 싶네요!" 멀쩡한 사람도 꿈 없이 방황하는 시대. 소외된 계층은 오죽할까. 다행인 것은 아직도 임정택 대표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젊은 영웅이 있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화승그룹이 있다는 사실이다. 🇰🇷



현지호 총괄 부회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회장으로 위촉



지난 5월 16일, 화승그룹 부산사옥(연산동) 5층 회의실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회장 위촉식이 진행됐다. 부산지회 후원회장으로 화승그룹 현지호 총괄부회장이 위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안민석 회장(국회의원, 경기도 오산)을 비롯해 이증명 부회장(에머슨퍼시픽 회장), 천진욱 사무총장, 배태균 부산지회장(화승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협회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화승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고영립 前후원회장 및 임직원

을 중심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설립초기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진행해왔다. 특히 부산지회에서 주최하는 백혈병소아암환아돕기 사랑나눔 걷기대회 등 매년 열리는 각종 후원 행사에 적극 동참해 후원금 조성의 20% 이상의 역할을 하며 부산 대표 후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지호 후원회장은 위촉식에서 “백혈병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후원 참여 의사를 밝혔다. 🇰🇷🇸🇰



2014년도 신임임원, 인재 육성의 포부를 다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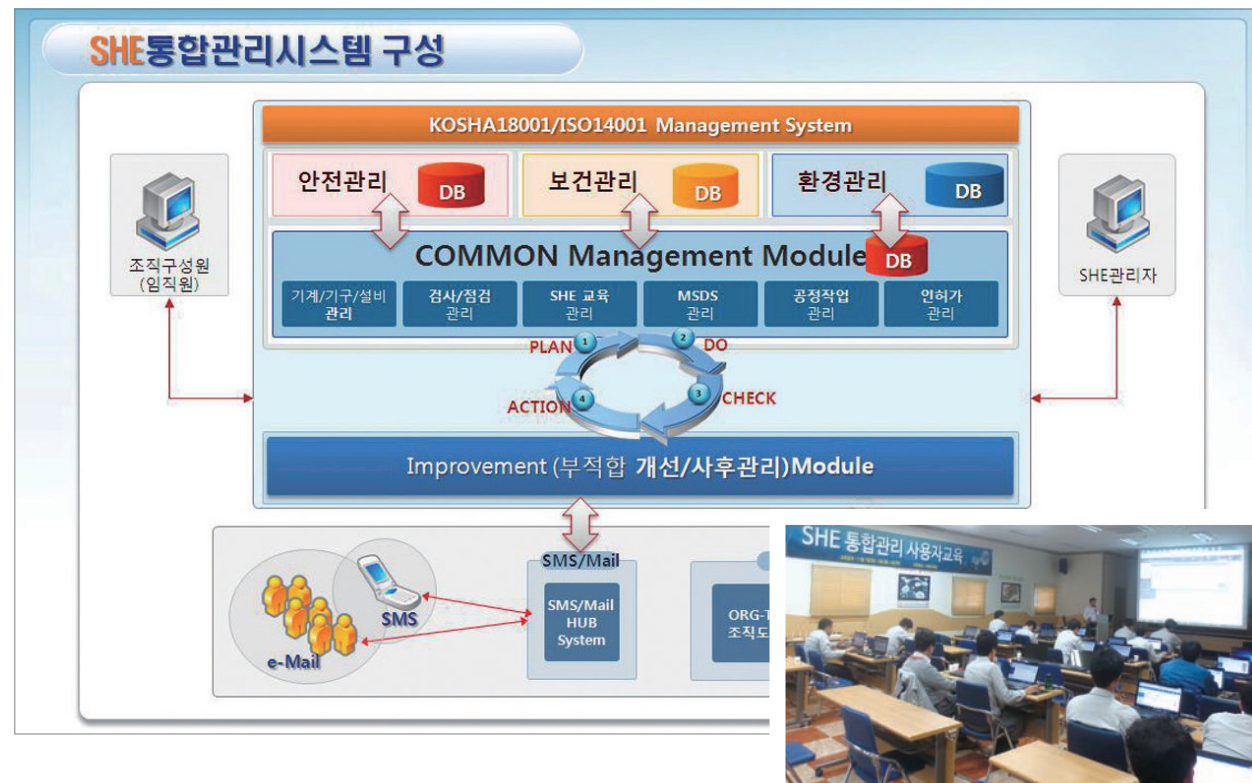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농심호텔에서 ‘2014년 화승그룹 신임임원 역량강화 과정’이 열렸다. 2014년 새롭게 승진한 국내·외 신임이사 15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과정은 경영지식과 실용지식 습득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 함양을 목표로 구성됐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리더십, 변화 관리, 전략, 비전, HR까지 총 5가지 분야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킬을 전문 강사진의 강연과 함께 사례연구, 실습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임임원들은 회사 내 인재육성과

관련된 ‘인재 경영’ 교육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과정이 종료된 후, 이들은 화승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화승만의 명확한 가치설정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해 훌륭한 인재육성을 하겠다며 새로운 관리자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다짐했다. 🇰🇷🇸🇰

* 임원교육 참여자 : 화승인더스트리 김동진 이사부장, 김두한 이사부장, 김영중 이사부장, 화승엑스월 송권우 이사부장, 홍승표 이사부장, 화승네트웍스 황정환 이사부장, 화승소재 손승용 이사부장, 김철홍 이사부장, HSR 임영한 이사부장, 화승R&A 이기영 이사부장, 김명후 이사부장, 최재혁 이사부장, 안재현 이사부장, 화승T&C 구철홍 이사부장, 회장실 김영덕 이사부장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 IS PERFECT



화승R&A와 화승소재가 환경 안전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화승R&A와 화승소재는 안전 보건 환경의 선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3년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및 2012년 KOSHA 18001/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바탕으로 지난해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올해 효율적인 적용을 앞둔 상황이다. SHE(안전, 보건, 환경)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관리대상(4M: Machine, Media,

Man, Management)의 관리목적에 맞는 인벤토리 구축과 SHE공통영역의 공유 및 활용이 원활하도록 통합적 개념의 선진화된 안전/보건/환경 경영 관리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안전/보건/환경분야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테스트 단계에 있다. 화승R&A와 화승소재는 SHE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



6일간의 짜릿한 일탈을 맛보다 화승R&A · 화승소재 모범사원 해외여행



* 모범사원 여행 선정자: 화승R&A SL선행개발팀 김동혁 과장, FL생산관리팀 전규홍 과장, FL영업팀 이경우 대리, FL생산팀 정순희 사원, FL생산팀 박돌욱 사원, FL생산팀 최현중 사원, 설비지원팀 하관규 사원 화승소재 품질보증팀 정한수 사원, 생산팀 박종문 사원, 설비지원2팀 최훈식 사원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화승R&A와 화승소재에서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10명의 사우들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거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까지 둘러보는 코스인 만큼 10쌍의 가족 모두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했다. 운무가 낀 베트남 하롱베이 선상에서 무릉도원을 경험했다는 모범(?) 사우들, 이들은 많은 여행 코스 중 캄보디아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아시아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 세계 3위의 아이러니한 나라, 특히 기원전 12세기 경

비옥한 토지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왕이 자신의 사후세계를 위해 100% 돌로 만든 사원이자 단일신을 모시는 사원 중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앙코르와트, 함께 여행한 사우 모두가 이곳의 정교함과 웅장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고 한다. 잠시 일상에서 탈출해 타국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다시 업무로 복귀한 이들, 이들의 휴대전화 메인화면엔 당분간 여행지의 달콤한 추억을 남긴 부부 사진이 자리할 것이다. 🇰🇷

* 화승R&A FL영업팀 이경우 대리의 여행후기를 참고해 작성한 글입니다.

NEWS



화승그룹

화승 기 살리는 직원 사랑 복지, 그리고 소통— 화기애애 캠페인 진행

화승그룹은 지난 6월부터 화승 기 살리는 직원 사랑 복지 캠페인 '화기애애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시작했다. 화승그룹 회장실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그룹 경영진과 임직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 현승훈 회장의 새로운 스킨십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가족 사연 공모를 통해 12월까지 매월 당첨된 2명의 직원(사무직, 현장직, 해외주재원 포함)에게는 특별휴가 2일권, 제주도 여행항공권 4매, 여행경비 100만 원 등 총 3가지 상품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 직원들에게 현승훈 회장의 철학을 담은 편지가 매월 1일, 전자우편 및 게시판 등을 통해 발송된다. 그룹 회장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원복지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원한 봄바다 위를 거니는 두벅이들— 2014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지난 5월, 전국 곳곳에서 봄을 만끽하는 축제가 열린 가운데 부산에도 바다 위 10여 리 길 광안대교를 걷는 행사가 치러졌다.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를 지나 부경대학교 대운동장까지 총 7.3km 코스를 걷는 2014 다이아몬드브리지(광안대교 영문 애칭) 걷기 대회다. 지난 5월 11일, 3만 3,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한 이번 행사는 좋은데이, 부산광역시, 화승그룹 등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록 그룹 크라잉넛의 공연과 다양한 경품행사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들의 주말 나들이에 기쁨을 선사했다.



저탄소 녹색실천은 자전거로부터— 제6회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지난 5월 25일, 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취지로 '제6회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부산·경남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남구 대연동 대천초등학교—광안대교—수영감—센텀시티—광안대교 하판 등 총 16km 구간을 달리며 절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MBC와 함께 녹색 부산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화승그룹은 앞으로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문화행사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화승엑스월

7년 동안 늘 변함없이—

화승엑스월 창립 7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승엑스월은 지난 4월 1일 장천빌딩 8층 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변수강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준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계 경기회복 시 기일수록 더욱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화승엑스월 임직원들은 새로운 비전, 목표를 가지고 직원 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더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변수강 대표이사는 모범사원상, 장기근속 상을 수여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화승인더스트리



45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 화승인더스트리 창립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5월 7일, 화승인더스트리는 아산공장 대강당에서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사원과 장기근속자 표창, 우수제안부서 및 우수제안사원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경영기획팀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543건의 다양한 제안을 통해 우수제안부서로 선정됐다. 장기근속자 표창에는 10년/15년/20년/25년 부문으로 총 30명의 직원이 수상했다. 한편 화승그룹 회장표창으로는 경영기획팀 심흥섭 차장이 선정되어 직원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았다.

그룹 임원 인사 승진

이사 → 상무이사 (주)화승R&A : 이영주
HS VINA : 박준병, 이상대
HSB : 김승희
HSAA : 김형진

이사부장 → 이사 (주)화승R&A : 이종강
HSD : 안봉문

부장 → 이사부장 (주)화승R&A : 김명후, 이기영, 최재혁, 안재현
(주)화승인더스트리 : 김영중, 김두환
(주)화승소재 : 김철홍
(주)화승T&C : 구철홍
(주)화승엑스월 : 송권우, 홍승표
(주)화승네트웍스 : 황정환
HSP : 김병준
HSR : 임영한
그룹 회장실 : 김영덕

전보 및 겸직

신흥기 부사장 (주)화승소재 영업총괄본부장 → 그룹 감사실

최명렬 전무이사 인도법인 총괄법인장(HSI AUTO, HSMI)
→ (주)화승R&A 글로벌 본부장

최요휘 전무이사 (주)화승R&A 구매본부장
(주)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본부장
(주)화승T&C, (주)화승공조 구매담당
→ (주)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본부장
(주)화승소재 구매담당

김승희 상무이사 HSB 법인장 → HST 법인장

신창훈 이사 HSD 개발/영업 담당 → HSV 영업/SEA/QIP 담당

이희영 이사부장 HSV PI 담당 → HSD 개발/영업 담당

권오희 이사부장 (주)화승T&C 자동차부품 담당
→ (주)화승R&A 생산기술본부장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과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사원

(주)화승R&A 황지희 (기획팀 사원)

(주)화승소재 임상호 (기획팀가팀 대리)

(주)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주)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주)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사원)

(주)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사원)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계장)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최영훈 부장

중국 HSD 김병호 대리

중국 HST 임성우 과장

〈DBT〉 봄호 독자 리뷰

당신의 초심은 안녕하신가요?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앞으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유난히 집착과 잔소리가 많아져 안 싸우는 날이 없네요. 9년 전, 배를 보며 설레던 그때의 엄마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딸, 엄마는 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게!

•이정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초보교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이들보다는 늘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챙기던 그때의 초심을 다시 꺼내봅니다.

•권성경

몇 해 전 큰 수술을 한 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리라 결심했었는데 허걱, 어느덧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제 모습에 화가 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건강관리에 돌입해야겠습니다.

•김수운

12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게 했던 한마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덧 임원이 되어 면접관의 자리에 앉아 청년들의 패기를 보니 회사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던 신입사원 김석현이 생각납니다.

•김석현

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소멸가였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글쓰기인지라 언젠가는 그 꿈을 꼭 이루고 말겁니다.

•김현수

결혼하고 가장이 된 지금 자식들에게 정을 많이 쏟다보니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못 드렸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시 한 번 효심 발동해서 오랜만에 안부전화 드립니다.

•김기학

9년 전,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을 때 다시 일어나시면 늘 효도해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을 잊고 자꾸 짜증만 내는 못된 자식이 되었네요. 부모님께 잘 하자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정

설레고, 떨리며, 두려웠던 입사 첫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가슴 떨리게 생생한 순간입니다. 회사 내에서 사람들로 부터 상처받고 흔들릴 때마다 입사 첫날을 기억합니다.

•유인자

남편은 절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콩깍지 썩어서 남편에게 넘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젠 웬수가 되었네요. 사랑이 넘치던 그때의 마음, 이젠 아이들이 대신하고 있어 남편에겐 조금 미안하네요. 그나저나 사랑하는 아이들, 말 잘 들어. 혼난다!

•구진선

출산과 육아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7년간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끔한 차림으로 출근하는 엄마들이 부러워져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족에게 소홀해짐을 많이 느끼는데 열정 넘쳤던 당시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장하숙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여름호 독자엽서 당첨자



심랑진을 만어로), **김미숙**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 89), **조영희**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133)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김현빈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최종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송지영 (경남 밀양시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이정호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권성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김수운** (대전시 중구 태평로 35), **김석현**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장하숙** (대구시 달서구 월성1동), **김현수** (부산시 동래구 총명대로), **김민정** (인천시 동구 송현2동), **유인자**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구진선**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곡리), **김기학**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4년 6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죽은 것은 뻣뻣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다

- 노자[老子] -

Do Better
Turn around 2014
Tomorrow

2014 Summer vol.35 2014년 6월 16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사진 DBT 사람들
기획·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치선, 심일옥
하이미디어 P&I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편집·출판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사 진 (주)유닉하우스(02-511-7277)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인 쇄 삼조인쇄주식회사

펴낸 곳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경우 바른 경우현

경우현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일을 만들자. 2007년 입사 이래 늘 우현이의 마음을 다잡았던 게 바로 이 슬로건이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그는 신규 바이어 발굴에 힘을 보태고, 언제든지 당장 달려가 미팅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성장했다. 자율적인 회사의 분위기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이 가끔 엄습하지만 담당을 신뢰하고, 생각의 길을 터주는 유연한 선배들이 있기에 우현은 행복하다.
무심코 지나친 메일을 매일 다시 열어보는 습관. 그 습관으로 놓친 바이어를 찾거나, 잃은 기회를 찾곤 하는
이 경우 바른 경우현이 5월의 신랑이 되었다. 하나보다 둘로서 더 완벽한 유연함을 위해.



화승엑스월 호스시트사업팀
경우현 대리